

농협전남본부 추진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명예이장제

도-농-기업 상호 소통·교감 가교역할 '톡톡'

농협합평군지부-합평군

업무협약·명예이장 위촉식

도농 협동 새로운 모델 창조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가 진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와 명예이장 제도가 농촌과 도시, 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농협전남본부는 지난 17일 합평축협 회의실에서 농협합평군지부(지부장 정용훈)와 합평군청(군수 안병호)이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업무협약 및 명예이장 위촉식을 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운동은 기업 최고 경영자(CEO) 및 단체장 등을 농촌 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상호 교감과 인정을 나누며 마을의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촌마을에 '또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도농 협동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는 법 국민운동으로 이번 협약 및 위촉식은 농협과 합평군청이 농업인과 도시민이 동반자 관계로 함께 성장·발전하는 사회적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홍영민 합평부군수와 정

용훈 농협중앙회 합평군지부장이 도농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이 도시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명예이장 제도가 조기에 정착,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 전남김사국 김성현 국장이 나산 원이문마을(대표 김동원), 영광축산농협 구희우 조합장이 손보 수철마을(대표 이종기), 합평전지비섯영농조합법인 박준호 대표가 합평읍 송정마을(대표 나용운), 천지환경 최성규 대표

가 신광 학천마을(대표 김영준), 현대자동차 전남영업본부 윤주호 대표가 손보 해장마을(대표 김대선)의 명예이장이 됐다.

모니터뱅크 이오철 대표가 학교 원곡장마을(대표 한재열), 아이티센터 김인식 대표가 엄다노상마을(대표 이계중), 주식회사 동보산업개발 조동국 대표가 해보 상모마을(대표 윤기상), 주식회사 지금강이앤지 김식대표가 월야 석계마을(대표 안기웅)명예이장으로 각각 위촉장을 받았다.

한편 정용훈 농협합평군지부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상호 간 소통과 교감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를 하고 고령화 등으로 부족한 농번기 일손을 돕고 도시민이 찾아오고 싶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확대 추진하고 지역의 많은 기업체 CEO(최고경영자)들이 함께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17일 합평축협 회의실에서 열린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전남 '베이비 부머' 퇴직 본격화에도 귀농·귀촌 감소

농식품부 통계 현황 ... 지난해 2054가구 감소 3만1089세대

'베이비 부머'의 퇴직이 본격화돼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전남 지역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귀농·귀촌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전국 귀농·귀촌 가구수는 전년에 비해 6.2% 증가했다.

반면, 전남도의 2015년 귀농·귀촌 가구수는 2054가구 감소한 3만1089세대로 줄었다. 귀촌 가구 통계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15년 전남도 귀촌가구는 전년에 비해 2165가구가 줄어든 2만9220가구로 전년 대비 6.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역시 2015년 귀촌가구가 전년 대비 1.8% 감소해, 전남북 지역의 귀촌가구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황주홍 의원은 "갈수록 귀농·귀촌가구가 증가하는데 반해 전남도의 귀농·귀촌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귀농·귀촌 문제는 농촌복지와 직결되고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인 만큼 귀농·귀촌 정책 전

반을 가다듬어 전남을 귀농·귀촌 1번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귀농·귀촌 시·도별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9개 광역도의 귀농가구는 경북이 2221가구가 가장 많았고, 전남(1869가구), 경남(1612가구), 충남(1374가구), 전북(1164가구), 경기(1061가구), 강원(986가구), 충북(928가구), 제주(390가구) 순이었다.

귀촌가구는 경기도가 8만1465가구가 가장 많았고 경남(3만7541가구), 경북(3만5363가구), 충남(3만4445가구), 전남, 강원(2만4323가구), 충북(2만8544가구), 전북(1만6183가구), 제주(7147가구)가 뒤를 이었다. /오광록기자 kroh@

추석 앞두고 명태·오징어 등

비축 수산물 8310t 방출

해양수산부는 21일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8310t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명태 3231t, 고등어 1838t, 오징어 2202t, 조기 133t, 갈치 118t, 삼치 788t 등을 방출한다.

해수부는 물가 안정과 더불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출 수산물을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남은 물량을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방출 수산물은 전부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돼 있어 시중 가격보다 10~30% 싸게 판매된다.

해수부는 또 수산물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석에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 파는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나주배, 호주 수출길 다시 열린다

농축산검역본부 "올해도 작년과 동일 조건 수출"

나주 배의 호주 수출길이 다시 열릴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는 21일 "일부 농가에서 과수 세균병인 화상병 발생하면서 불확실했던 국산 배의 호주 수출이 올해 차질없이 이뤄질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등록된 단지는 나주, 상주, 하동 3개 단지이다.

호주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화상병이 발생하자 한국산 배 수입을 일시 중단한 바 있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호주 수출 등록 과수원이 아닌

천안·안성 등 일부 지역에 화상병이 발생해 배수출이 불확실했던 상태였다.

하지만 검역본부는 호주 수출 등록 과수원의 경우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요건으로 차질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 농가뿐 아니라 내수용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민과 지자체도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외국인 순매수·대형주 강세 흐름속

美 금리인상 우려에 숨고르기 장세

엘런 미 연준의장 연설 내용 주목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최초로 167만원을 돌파하며 이를 연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237조원으로 늘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대비 18%에 이르게 됐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상승에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연속적으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고 있고 3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갤럭시7 흥행으로 스마트폰 부문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난 주 18일 삼성재계가 보유한 삼성증권의 주식을 전량 삼성생명에서 인수하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관심을 받았고 삼성그룹내 삼성전자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8월 들어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의 상승 흐름이 돋보이고 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항체의약품 복제약) 램시마의 오리지널 제조사인 안센에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올해 10월부터 미국 전역에 램시마를 판매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승탄력을 받고 있다. 램시마 판매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그 동안 셀트리온 상승에 발목을 잡았던 공매도를 위한 대차잔고가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차잔고의 상환 추세가 주가상승 탄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시가총액 상위종목인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으로 쏠림현상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약세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 상승총액은 329종목인데 하락종목은 477종목을 기록했고 코스닥시장도 상승 477종목, 하락 579종목으로 양시장 모두 하락종목이 상승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코스피지수는 전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도주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S&P500지수와 같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신고가 종목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은 추세적인 상승흐름을 타고 있어 그 흐름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최근 코스피지수와 같이 시가총액 상위주 중심으로 국한되어 나타난다면 지수의 상승추세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박스권돌파를 위해서는 상승주도주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번주에도 지난주와 같이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는 대형주 강세 흐름과 함께 그룹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부각되면서 삼성그룹주의 관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형주의 강세흐름과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이 발표로 연결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지주사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중소형주에서는 삼성전자와 중국의 투자기대감으로 급등후 최근 조정을 보인 반도체업종과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제약주에 관심이 높아 보인다.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미국금리인상의 시기는 매년 8월말 캔자스시티 연준이 주최하는 학술회의인 잭슨홀 컨퍼런스에 엘런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 연설내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연설 내용에 따라 월말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평택 토지 전문' (Pyeongtaek Land Specialist) and '경기도 화성시 공장부지' (Gyeonggi-do Hwasung-si Industrial Land). It features details about land area,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wo agencies.